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0.26~2016.1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2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3	나를바꾸는100일	마가스님	휴(한겨레출판)
4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허암 김명우번역)	요코야마코이치/허암	민족사
5	무엇때문에바쁘십니까	켄포 소달지	담앤북스
6	명성(구름속의큰별)	남지심	불광출판사
7	토끼뿔거북털	월주	(주)조계종출판사
8	금강경강의(강미농의)	강미농/양관	담앤북스
9	금까마귀계수나무위를날고	박부영	불교신문사
10	화엄경게송집세트	일초스님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불화가 전달하려는 참뜻은 '삶의 바른 이치'

사찰불화 명작 강의

강소연 지음 | 불광 펴냄 | 2만원



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즈음, 〈사찰불화 명작강의〉는 불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미적 · 종교적 · 역사적 관점서 친절히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에 소개된 10점의 불화는 한국 불화만의 멋과 아름다움을 오롯이 간직한 국보급 명작들이다.

불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불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에게 우주관 · 가치관 · 사후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불화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지옥과 극락, 정토세계와 사바세계, 법계와 속계, 연화장세계 등.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화가 전달하려는 뜻은 '삶의 바른 이치'이다. 불교에서는 불교미술이라는 용어보다 '불교장엄'이라는 표현을 쓴다. 사원이나 법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장엄'이다. '장식'과는 다르게 '장엄'에는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덕행을 아우르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중요시한다. 마음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궁극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행위가 '공덕(功德)'이다. 그래서 장엄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덕이다. 진정한 공덕이란, 내가 아닌 타인을 돕기 위해 또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불교서 가장 중요시하는 행위가 바로 이 공덕이다. '공덕장엄'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불교의 모든 조형미술은 공덕장엄의 표현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찰불화는 이 같은 공덕장엄의 진리가 여실하게 담긴 최고 최상의 작품이다.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사찰불화 여행

기존의 불화 관련 책들은 대개 제작 기법이나 그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소개하는 학술서 성향이 강했다. 그래서 감상적 차원에서 작품을 이해하길 원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불화의 매력을 어필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사찰불화 명작강의〉는 학문적 지식의 나열이 아닌 기행문 형식을 가미하여 독자들에게 읽는 맛을 선사한다. 우리나라 사찰 곳곳에 숨겨진 명작 불화를 찾아 떠나는 저자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마치 현장에 동행해 눈앞에서 해설을 듣듯 편안한 마음으로 불화에 대해 배우고 감상하게 된다. 작품과 사찰에 얽힌 오랜 역사와 흥미로운 일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독자들을 불화의 세계로 초대한다.

불화 입체적 감상 법 알려 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겉으로 드러난 작법이나 가시적 아름다움만을 눈으로 좇아서는 진정한 깊이를 맛볼 수 없다.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그것이 담고 있는 주제 의식까지 함께 살필 때 보다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하다. 〈사찰불화 명작강의〉는 불화의 기본적인 구도나 묘사법 같은 작품의 기술적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각 작품들에 담긴 핵심 내용(불교적 가르침)과 작품이 제작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까지 두루 짚어준다. 또 불교가 낯선 이들을 위해 '기초공부'를 통해 불교 용어를 세심히 설명한다. 25년 차 베테랑 미술학자인 저자의 식견과 다채로운 해설을 통해 독자들은 다양한 관점서 불화를 접하게 되고, 이로써 책에 소개된 작품들뿐 아니라 한국불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불화의 현란한 장식 표현과 매끈한 곡선에서 전해지는 멋스러움 이면에 감춰진 층층의 이야기들을 꿰뚫어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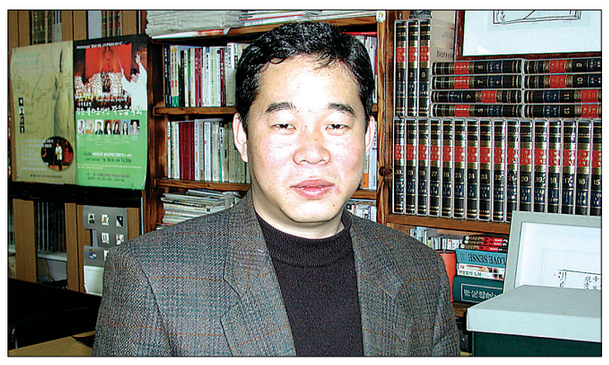
꼭 한 번 봐야 할 명작

이 책에 소개된 작품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진면목을 아낌없이 표현한 그림들로 종교적 경지를 예술로 승화한 최상의 불교 종교화이다. 하지만 종교를 떠나 누구나 꼭 한 번쯤 봐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무위사의 〈아미타삼존도〉, 해인사의 〈영산회상도〉, 동화사의 〈극락구품도〉, 용문사의 〈화장찰해도〉, 쌍계사의 〈노사나불도〉, 법주사의 〈팔상도〉, 운흥사의 〈관세음보살도〉, 갑사의 〈삼신불도〉, 안양암의 〈지장시왕도〉 등 10점의 작품 대부분은 국보 · 보물 · 유형문화재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로 선정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무작 안직수 엄남미 지음 | 도반 펴냄 | 9천원

〈반야심경〉서 새록새록 피어난 詩心





항상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글로서도 보여주는 불교신문 안직수 기자〈사진 왼쪽〉가 야심찬 출간을 했다.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으로 시를 창작한 것이다. 반야심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도다.

시를 읽어보면 무척 재미있다. '크다'라는 의미의 마하에 대해 안 작가는 '어머니 마음'을 비유한다. 마하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더 큰 세계, 더 심오한 경지를 말한다. 즉,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보다 더 큰 세계가 마하의 세계다. 그 단어를 작가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자식의 귀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마하라고 말한다. 잔뜩 힘을 주고 보려던 마음을 비웃듯 작가는 일상 속에서 반야심경의 이야기들을 한다. 시를 보며 가끔은 반야심경에 대한 생각을 잊을 때도 있었다. 그렇게 또 한 사람의 마음서 아주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반야심경을 시로 쓴 시인의 이야기는 반야심경의 크고 깊은 뜻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삶의 살아 있는 이야기 속에서 피어나는 반야심경은 틀림없이 살아 있다.

머리글에서 안 작가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불교활동한 작가로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은인이고, 인연이다. 그 빚은 갚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글이 한편의 반야심경이다 라고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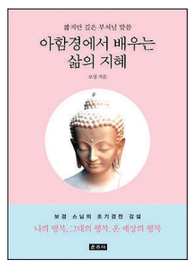
홍사성 월간 유심 주간의 "천의무봉, 선녀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처럼, 글이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고 완벽하다"는 평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재단 잘된 옷처럼 튼실하다.

김주일 기자

아함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보경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6천원

아함과 동서양 사상과의 회통… 진정한 행복의 길 발견



부처님 교설은 크게 법과 율로 나뉘고, 이는 다시 장(藏)이라 하여 경장 율장 논장으로 구분한다. 경장은 부처님 교설을 모은 것이고, 율장은 계율에 대한 교설이며, 논장은 경율에 연구를 체계화 한 것이다. 부처님 열반 후 세월이 흐르면서 불교의 전파도 다양한 루트로 이뤄졌다.

경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남방불교(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의 전승은 '니까야(部, nikaya)'라 하여 장부-중부-상응부-증지부-소부 등의 5부로 나뉘고, 북방불교(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전승은 '아가마'라 하여 장아함-중아함-잡아함-증일아함 등의 4아함으로 구분했다. 이 책은 아함경서 현대인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을 골라 소개하고, 이 시대에 맞게 해설한 것이다.

이 책은 아함경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잡아함경 내용을 주로 다룬다. 초기불교의 경전들은 모두 암송에 의해 구전됐다. 따라서 암송하기 용이한 짧은 게송 형태의 경전이 우선적으로 전승됐고, 바로 이런 면에서 적은 분량에 간결한 게송이 어우러진 잡아함경이 많이 통용됐다. 전체 분량은 50권 1,362개 경으로 되어 있다.

저자는 이들 가운데서 30개를 선별해 해설을 붙였는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되고 오래 기억할 만한 내용, 그러면서 부처님 당시를 가늠해볼 만한 흥미 있는 소재, 나아가 해설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을 택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책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관되는 경전 내용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백미는 해설 부분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아함경의 내용을 풀이함에 있어서 멀리는 유럽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과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 그리고 동양의 고전들, 나아가 근현대 사상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으로 인용하면서 경전에 담긴 인류 보편의 가치, 즉 인문학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함경 이후의 여러 대소승 경전들을 인용하는가 하면, 중국의 선어록에 담긴 내용들과도 자유롭게 비교해 가면서 아함경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적, 실존적 삶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아함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설한 책이 아니라, 불교경전의 가르침이 어떻게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들과 회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현대인의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 석가모니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진정한 행복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 아닐까.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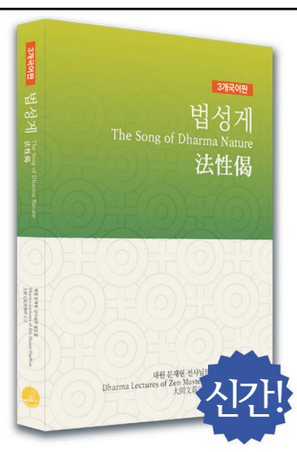
민중의술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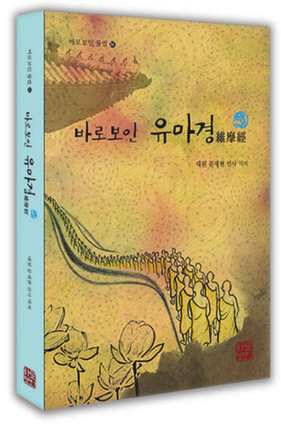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82권째 서적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신간!

법성게 3개국어판

법성게는 한마디로 화엄경의 핵심부를 훤출히 드러내놓은 게송으로 짧은 글 속에 일체 법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통쾌한 법성게 법문이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되었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고 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도서출판 문젠(구,바로보인) ☎ 031-534-3373